

광주 대표 흉물 ‘서진병원’ 올해는 철거될까

1995년 ‘자금난’ 공사 중단 후 방치
쓰레기 투기·청소년 비행 장소 전락
개발업체 부지·건물 매입 작년 완료
“재정 문제 걸림돌…지자체 지원 必”

30년 넘게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돼 광주 대표 흉물로 꼽히는 서진병원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마무리되면서 철거가 가능해졌다.

서진병원 부지와 건물을 매입한 업체 측이 철거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지만, 재정상의 어려움이 크다며 행정 당국의 도움을 바라고 있어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는 부동산 강제경매와 관련, 서울 소재 모 교회가 제기한 재항고를 지난해 8월22일 기각했다.

해당 교회는 2022년 8월 광주지방법원 경매를 통해 서진병원 건물을 매입했다.

광주 남구 주월동에 위치한 서진병원은 학교법인 흥복학원이 1982년 서남대학교 부속병원으로 건축 허가를 받아 작공에 들어갔으나, 경영난 등의 이유로 1985년부터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뚜렷한 사용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서 장기간 방치된 서진병원은 청소년들의 비행 장소로 전락했고 쓰레기 무단 투기 등 문제로 몸살을 앓았다. 그



30년 넘게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돼 광주 도심의 대표 흉물로 꼽히는 남구 주월동의 서진병원 건물.

/조영권 기자

려다 이흥하 전 흥복학원 이사장이 세금을 체납하

면서 서진병원 부지는 압류됐고 경매에 부쳐졌다.

매입에 적극적으로 뛰어든 건 광주 지역 A 개발업체로, 쪼개져 나온 부지 대부분을 사들였다.

이로 인해 서진병원이 남의 땅에 세워져 있는

게 되면서 A 업체 측은 이전 이사장에게 사용료

를 청구했으나 거절 당하자 흥복학원을 상대로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대법원은 흥복학원이 서진병원을 철거

하지 않을 경우 A 업체 측에 매월 1천400여만원

의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를 근거로 A 업체는 서진병원 경매를 신청했

전남대병원 노조 “인력 감축 철회하라”

전남대병원 노동자들이 인력 감축 철회와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남대학교병원 지부는 7일 오전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 1동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력 축소를 철회하고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마련하라”고 병원 측에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신나리 전남대병원지부 지부장을 비롯해 조합원 50여명이 참석했다.

노조는 최근 병원이 56인실 병실을 4인실로 전환하며 병상당 수익을 늘린 반면, 간호 인력은 오히려 줄어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장 발언에 나선 김수연 간호사는 “인력이 부족해 환자에게 즉각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까 늘 불안하다”며 “환자 안전을 누가 책임질 수 있느냐”고 토로했다.

환경관리 부서의 열악한 근무 여건도 도마 위에 올랐다. 노조는 “물결레 청소실 출입문 폭이 50cm에 불과하고, 환풍시설과 배수 구조조차 없는 공간에서 노동이 이뤄지고 있다”며 “산업안전 기준을 외면한 반인권적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윤찬웅 기자

음주사고 피해자, 허위 보험금 신청했다 ‘징역형’

없었던 동승자 뭇까지 수백만원 수령

법원,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도망가자 동승자 여부를 모를 거라고 생각해 허위 보험금을 신청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호석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30대) 씨에 대해 최근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장 발언에 나선 김수연 간호사는 “인력이 부족해 환자에게 즉각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까 늘 불안하다”며 “환자 안전을 누가 책임질 수 있느냐”고 토로했다.

환경관리 부서의 열악한 근무 여건도 도마 위에 올랐다. 노조는 “물결레 청소실 출입문 폭이 50cm에 불과하고, 환풍시설과 배수 구조조차 없는 공간에서 노동이 이뤄지고 있다”며 “산업안전 기준을 외면한 반인권적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윤찬웅 기자

술 취해 이웃 상대 ‘상습 행패’ 50대 구속기소

술에 취해 이웃을 상대로 흉기 위협 등 장기간 행패를 부린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7일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1부 (부장검사 이경석)에 따르면 특수협박과 주거침입 등 혐의를

A씨는 2024년 12월11일 광주 동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방향 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은 채 차선을 변경해서 들어온 B(60대) 씨의 차량에 들이박히는 사고를 당했다.

다행히 A씨는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지만, B씨가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하자 허위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 먹었다. 특히 차안에 누가 있었는지 모를 것이라고 짐작해 자신의 배우자도 함께 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몄는데, 이 같은 방법으로 A씨와 그의 배우자가 합의금과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회사로부터 편취한 돈은 800만원 이상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A씨의 배우자에 대해 입원 확인서 등을 발급한 의사들이 A씨를 상대로 상해 진단서를 작성한 만큼 이 역시 믿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편취금을 모두 반환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건 유리한 정황”이라면서도 “죄질이 좋지 않고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에 대해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재영 기자

녀 등 가족 관계로, A씨는 이들이 인사를 잘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그가 알코올 중독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 위험성이 높아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점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 발부받았다. /안재영 기자

60대 운전자 주차장 차단기 ‘꽂’

심정지서 병원 이송 중 의식 회복

광주에서 60대 운전자가 도심 한 주차장 입구의 차단기를 들이받아 심정지 상태에 빠졌으나, 다행히 병원 이송 중 의식을 회복했다.

7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38분께 서구 금호동 한 공영주차장 입구 차단기를 승합차가 들이박는 사고가 발생했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승합차 운전자 A (60대) 씨에 대해 소방 당국은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실시했다. 이후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의식을 회복했다. 사고 당시 동승자는 없었으며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한 결과 제동 장치 이상이나 운전 미숙 등에 의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연상 기자



AI가 광주매일신문을
똑똑하게 읽어줍니다.

실리를 따진다면 가성비 좋은 피닉스입니다!

1. 믿을 수 있는 100% 국내공정
2. 신속하고 확실한 A/S
3. 합리적인 가격에 고품질 제품

전 브랜드 할인 판매!
중고 골프채 보상 판매!



고블 G-07 프리미엄 럭셔리 프리미엄 상급자용



피닉스 K-07 럭셔리 중상급자용



피닉스 G-01 초보 입문자용

FREE 전국 택배 무료 배송!

영무SP sports

062) 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 (백운동 644-33)

www.sunparkgolf.com

